Economy p/10

LG유플러스 신입사원 채용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제2944호 www.metroseoul.co.kr

Health p/13

야구관람전 준비는 이렇게

中기업 한국게임시장 주무른다

텐센트, 5000억들여 CJ넷마블 28% 인수

팍스 시니카(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무르익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우리 토종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중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반게임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전·현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내 IT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 중 하나인 CJ넷마블의 지분 28%를 53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텐센트가 외국 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게임업체 전체를 통틀어 이 같은 규모의 외자를 끌어온 것 역시 CJ넷마블이 최초다.

넷마블은 지난해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다함께 차차차'와 같은 모바일게임의 흥행으로 49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CJ그룹 내 효자로 우뚝 섰다.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도 텐센트의 지원을 받았다. 텐센트는 2012년 카카오에 720억원을 투자해 13.8%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텐센트는 국내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다수의 중소 게임사에 6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이처럼 '친한파'를 자처하는 텐센트는 2007년부터 한국 게임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텐센트는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 서비스하며 큰돈을 만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스마일게이트가 만든 총싸움게임 '크로스파이어'를 현지에 풀어 동시 접속자 450만 명을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즉 '한국이 만든 게임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다.

텐센트와 함께 중국 인터넷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최근 국내 게임사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만간 CJ넷마블과 텐센트가 맺은 제휴 이상의 메가톤급 계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게임사가 만든 콘텐츠는 이처럼 돈 계산에 밝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게임 산업을 여전히 마약이나 도박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게임중독법'을 내세워 게임사들의 숨통을 조일 태세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과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을 포함한 IT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텐센트가 넷마블 지분을 인수하기 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빅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글로벌 빅히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만든 미국의 라이엇게임즈 지분을 인수한 사례다. 이때 텐센트는 라이엇 지분 90%가량을 취득했다.

텐센트조차 넷마블의 미래 가치를 라이엇보다 높게 평가한 셈이지만 게임을 천대하는 국내에서는 그 어떤 대기업이나 펀드도 이런 빅딜을 추진하지 못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진해는 벌써 '벚꽃 세상'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 화사한 벚꽃이 활짝 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진해 전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제52회 진해 군항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음주·흡연 남성 줄고 여성은 늘어

2012년 범죄발생↑ 기부↓

2012년 범죄 발생 건수는 늘어난 반면 기부의 손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음주·흡연은 줄고 있지만 여성은 오히려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94만5000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도 2010~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으로 늘었다.

형법범 건수도 103만8609건으로 2011년보다 4.1% 증가했다. 절도가 2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고, 살인(−15.7%), 강도(−34.3%), 강간(−3.1%) 등은 감소했다.

기부 참여율은 줄었다. 2012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현금을 기부해본 사람은 32.5%로 2011년 조사에서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물품 기부를 한 사람은 2011년 8.5%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물품 기부 경험자가 5.9%에 불과했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 43.3%로 2011년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19세 이상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은 2012년 25.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7.4%로 올랐고, 고위험 음주율도 6.5%에서 8.0%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서구형 질병인 심장질환 비율이 처음으로 뇌혈관질환 비율을 앞질렀다.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 수는 2011년 49.8명에서 2012년 52.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0.7명에서 51.1명으로 증가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계 파업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기자>

결국 의료계 총파업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0일 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협의안을 도출하고 24일로 예정했던 전면 휴진을 유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의협은 정부가 의·정 협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해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선시범 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 사업을 명기한 법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된 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의협은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 아래 휴진이라는 카드를 손에 들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정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파업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열정(?)을 보이며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파업 유보 철회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만 생각된다. 원래의 목적을 잃은 의료계 총파업이 의협의 목적 쟁취 수단이 된 꼴이다. 게다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파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총파업 강행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얼마든지 해명을 요구하고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협이 대화 대신 파업을 선택한 점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베를린 장벽 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해 옛 서독과 동독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과 그 위에 그려진 벽화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독 '통일대박' 구상 지원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 대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메르켈 총리는 '통일 선배'로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박 대통령은 "독일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모델"이라고 화답했다.

통일을 경험한 정상과 통일을 준비하는 정상이 만난 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 대박'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경제 통합 및 국제 협력 등 분야별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 ▲기존 한·독 통일 자문위 활동 내실화 ▲양국 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독일의 경제 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 체계적 연구 등이다.

경제 분야 협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분야 협력이 주 이슈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은 전기·전자, 스마트폰 제품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한·독 중소기업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된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베를린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베를린에서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 6명을 잇달아 만나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김민준기자 mjkim@

"유산을 한국전 기념비에" 2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댄빌시 보훈기념관에서 러셀 고먼 퇴역 해군 소장이 한국전쟁기념재단(회장 피트 매클로스키·www.kwmf.org)에 유산 중 13만5000달러를 약정 기탁했다. /연합뉴스

규제개혁 52개 추려 후속조치

경제장관회의 상반기 27건 마무리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 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상반기까지 마무리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 관리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에 타결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18개 부채 감축 중점 관리 대상 기관도 사업계획조정과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자산 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 관리 이행 기관은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고려해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선행학습 금지' 일반高만 피해

기자 수첩
윤 다 혜
<정치사회부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9월 시행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 근절을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까지 3년 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일반고의 오랜 관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사립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의 파편이 일반고로 튀었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가 특목고·자사고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수긍했다. '일반고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문 교육감은 오히려 일반고에 족쇄를 채운 격이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이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고의 족쇄를 풀 수 있을지 또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취지에 맞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팀스피리트 후 최대 상륙훈련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7일까지 팀스피리트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27일 "오늘 미국 7함대와 우리 해군의 상륙함이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만나 포항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쌍용훈련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는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국 측에서 해병대 7500여 명, 해군 2000여 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2000여 명, 해군 1000여 명 등 총 1만2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MEB)이 보유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도 지난해 4대만 참가했지만 올해는 22대가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 지휘관도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를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 작전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항소심 증거제출 문서 3건 철회

검찰, 간첩혐의 관련 공소유지는 강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 유지는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증거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고,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진정 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이어 윤 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 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 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광주진보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 앞에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해외재산 조사

뉴질랜드에 국세청직원 파견

국세청이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 재산무한추적팀 조사 요원들을 파견, 수백억원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도피했다가 구속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주권까지 얻어 약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건설사를 만들어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벌금, 금융권 채무 등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뉴질랜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허 전 회장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검찰에 체포된 후 하루 노역대가 5억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지금은 돈 없다.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로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원기자 pjw89@

권익위, UN과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협의 이성보(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서 게오르그 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청렴 정책과 반부패 성과를 설명한 후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현재현 "사기·배임 고의 없었다"

중앙지법 첫 공판서 주장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어음 발행 당시 동양그룹의 총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며 "그룹 자산을 팔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기회를 잃어 기업회생 신청에 나선 것"이라며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았다는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룹의 부도 피해가 시장 정보가 부족한 소액·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라며 "동양그룹은 주식회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 회장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 50여 명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잠시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현 회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정기자 jhj@

새정치민주 세모녀법안 등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조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러시아 소설가 고리키 태어남

1868년 3월 28일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시한 소설가 막심 고리키가 볼가강 연안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24세에 '쓰라림'이라는 뜻의 필명 고리키로 처음 소설을 발표했다. 고리키는 러시아 혁명에 적극 가담해 체포됐으나 국내외의 거센 항의로 석방됐다.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 체재할 때 발표한 '어머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형으로 고리키를 러시아 문학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개화동에 어르신사랑방 개관

서울시 강서구가 개화동에 위치한 내촌어르신사랑방을 새롭게 꾸미고 28일 개관식을 개최한다.

어르신사랑방은 1980년 개화동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건립돼 지금까지 30여 년간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처로 활용돼왔다.

삼청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종로구는 오는 4월부터 '삼청공원 이용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연령·탐방 코스별로 총 3종류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12월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시 중구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의 이번 사업은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

시중판매 식기서 중금속 발견

대형마트 유리·도자기류 13개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리·도자기류 식기에서 유해 금속인 고농도의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공개한 '장바구니 속 생활용품의 중금속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기류 13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64~4만6900ppm 수준의 납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3개는 각각 6099ppm, 1만2400ppm, 4만6900ppm 수준의 높은 농도의 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에서는 11~1578ppm 수준의 카드뮴이, 7개 제품에서는 20~2102ppm 수준의 비소가 검출됐다. 고농도의 납이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카드뮴·비소의 농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기류 안전 기준은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는데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 금속은 함유량이 아닌 용출 기준으로 관리된다.

실내화·욕실화 등 16개 생활용품 중 10개 제품에서도 52~8806ppm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욕실화·인테리어용 시트지 등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 기준을 가진 식기류 13개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기준을 가진 생활용품 1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나무에 꽃이?" 2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개막을 하루 앞둔 '2014 광주 봄꽃박람회'를 찾아 꽃이 활짝 핀 나무 조형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성상납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모델 전문 기획사'를 간판에 내걸고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온갖 악덕 행위를 일삼은 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사채를 끌어 쓰게 하고 성상납·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M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설씨는 계약을 맺은 여성 7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획사 홈페이지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설씨 등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평창동에 생명숲 어린이집 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을 오픈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종로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일 유동인구는 최상위권이지만 인구 밀도는 최하위권(2012년 기준 7243명/㎢)이며, 7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4.8%(7645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평창동의 7세 이하 영유아 수는 998명으로 평창동 총 인구 수(1만 9579명) 대비 5.1%를 차지하지만, 그중 53명만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생명숲어린이집은 재단이 지자체에 건립·기증 후 직접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031.59㎡의 규모로 16명의 교직원이 113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게 된다.

특히 생명숲어린이집은 보육과정에도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해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중심부인 종로구 평창동에 생긴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생명숲어린이집을 통해 다시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들리는 활기찬 종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총체적 부실…6명 영장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원공장…협력사 직원 사망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5시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변전실은 45㎏들이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50개가 연결돼 있으며 오작동으로 탱크 내 가스가 전량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인 오전 5시11분께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조치하던 중 오전 6시15분께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오전 7시8분께 숨졌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숨지자 오전 8시께 경찰에 직접 사망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방설비가 불이 난 것으로 인식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김씨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씨 사망 후 3시간 여 만에 사고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В Петербурге освоили иероглифы

Мастер-класс. Каллиграфистка из Японии научила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рисовать иероглифы

ОЛЬГА СОЛГАЛОВА

Исидзима Каори учит рисовать японские иероглифы

metro Brazil

Após chuva, mo... ficam 21 horas ...

Rescaldo. Raios e queda de árvores deixaram casas e comércios sem ... oeste. Eletropaulo afirma que 910 técnicos trabalharam nos locais ati...

Agentes removem árvore de grande porte que caiu na avenida Mercedes, na Lapa

상파울루 강타 폭우 도심 마비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를 강타한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다. 폭우는 밤새 막대한 피해를 냈고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단시간 내에 퍼부은 비는 서부의 라파 지역을 21시간 동안 암흑으로 만들었으며 캄푸벨루와 브루클링, 피녜이루스, 퐁페이아, 페르지지스도 정전에 시달려야 했다. 상파울루의 전력 공급회사는 정전의 원인이 번개와 그로 인해 쓰러진 나무 17그루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metro Mexico

Víctimas deben recibir atención médica gratis

범죄에 의한 부상 무료치료 받게

앞으로 멕시코에서 발생한 사고나 범죄에 의한 부상은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육체적 상처와 질병, 정신질환 등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응급 치료는 물론 치과 치료 및 외과 수술도 포함된다.

metro Colombia

Tablets agilizan apren... escritura de niños pree...

학습능력 향상에 태블릿 PC 도움

어린이 대상 조사 결과

태블릿 PC가 어린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콜롬비아 법인은 최근 콜롬비아 하베리아나대학교 연구팀과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10명의 미취학 어린이에게 태블릿 PC를 나눠주고 반응을 살펴봤다.

회사 관계자 세사르 무뇨스는 "어린이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데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프로젝트 취지를 밝혔다. 무뇨스는 "아이들에게 기기를 나눠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제품을 켜고 끄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 보는 IT 제품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아이들은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태블릿 PC 작동법을 터득했고, 10분쯤 지나자 마음껏 사진을 찍고 게임을 하며 놀기 시작했다. 30분 뒤에는 영상 편집이나 페이스북 접속 같은 다소 난이도 있는 작업들도 무난히 소화했다.

연구에 참가한 커뮤니케이션학부 및 교육학과 교수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관찰했다. 교수들은 모두 태블릿 PC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러 학습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것이다.

밀레나 레온 교수는 "평소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할 줄 모르던 남자아이가 완전히 변했다"면서 "특히 스크린을 재미있게 누르면서 글쓰는 방법을 배웠다. 책으로 공부할 때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속도"라고 놀라워했다.

/후안 파블로 피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한자 매력에 빠져 서예교실 열풍

페테르부르크市 거주 중·일 이민자들 개설

"한자는 정말 아름다운 글자예요."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에서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면서 서예가 인기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앞다퉈 서예 교실을 열고 있다.

5년 전 러시아에 온 이시지마 카오리는 남편과 함께 서예 교실을 운영하며 한자의 아름다움과 서예의 우아한 매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지마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러시아로 건너왔고 처음에는 생소한 러시아어 공부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됐다"면서 "붓글씨를 익히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 입문자들은 바로 화선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종이에 '꽃 화(化)'자 쓰는 것을 먼저 연습해요.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화선지를 사용하죠."

한 수강생은 "한자를 처음 써봤다. 아름다운 글자"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 '꽃 화'자 쓰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며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이시지마는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손쉽게 서예용품을 구할 수 있다"며 "일본에서 들여온 종이와 붓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며 고급반의 경우 수강생이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수강생 스네자나 코피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예 교실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동양의 문화와 글자가 마음에 든다. 예전부터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서예를 배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먹을 갈아 글자를 쓰는 서예는 정말 매력적이다. 줄곧 배우고 싶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다"며 "일본과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가 고향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페테르부르크 국립역사박물관은 서예 열풍에 힘입어 최근 서예 전시회 '깃털에서 컴퓨터까지'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시지마는 이와 관련,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서예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에 한자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77.97 (+13.66)

코스닥 541.46 (−2.67)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환율(원·달러) 1072.80 (−2.50)

삼성 몰래 조기출시 '말도 안돼!'

issue&view

SKT '갤럭시S5' 기습 판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종균 발언' 하루새 엎고 영업정지 돌입전 첫 출시 일각선 "서로 합의 됐을것"

SK텔레콤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를 공식 출시일보다 앞당겨 27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갤럭시S5의 조기 출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갤럭시S5 출시일을 다음달 11일로 발표했지만, 최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에 들어가면서 SK텔레콤 측이 경쟁사로의 가입자 이탈 우려에 조기 출시를 제안했다.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SK텔레콤만 단독 영업 중이며,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윤원영(왼쪽 둘째)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과 '갤럭시S5' 1호 가입자인 원재웅(왼쪽 셋째)씨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T월드 까페' 종각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들어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예고한 대로 갤럭시S5가 다음달 11일 공식 출시되면 SK텔레콤으로서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20일부터 가입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결국 경쟁사보다 한 달여 늦게 갤럭시S5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한 셈이다.

최근 통신 장애 등 악재를 겪은 SK텔레콤으로서는 단독 영업 기간 가입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측과 협의와는 별개로 단독 조기 출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앞서 신종균 IT·모바일(IM)부문 사장이 26일 갤럭시S5의 국내 출시 일정이 앞당겨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한 바 있어 양사 간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의 갤럭시S5 조기 출시는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한 뒤 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에서는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한 뒤 출시를 계획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대응도 미진한 데다 향후 신제품 출시 등 관계에 있어 SK텔레콤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이 갤럭시S5 단독 조기 출시를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연이어 갤럭시S5의 출시를 발표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유치는 불가능하며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나 파손·분실 휴대전화 이용자에 한해 기기 변경만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다음달 5일부터 단독 영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다음달 27일부터 또다시 영업정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20일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반면 KT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27일부터에나 본격적인 갤럭시S5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통 3사 중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먼저 영업정지가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뉴스

신중히 27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4 제13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고 있다. /뉴시스

성장사다리펀드 3종 구성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1차년도 조성 예정인 하위 펀드 중 중소·중견기업의 성장(Growth), 회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펀드, 지식재산(IP) 펀드, 코넥스 펀드 등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는 올해 3월까지 민간 매칭 등을 통해 1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장전략 M&A 펀드는 3년간 1조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1500억원을 출자하고 인수 기업과 민간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해 최소 30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원기자

은행 연체율 다시 오름세

●국내 은행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05%로 1월 말의 0.98%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1.26%와 0.78%로 각각 0.07%와 0.06% 악화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로 0.09%포인트 떨어졌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4%포인트나 오른 1.36%로 집계됐다. /김민지기자

벌써 수박 27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올해 따뜻한 날씨 덕에 예년보다 출하 시기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연합뉴스

카드·계좌번호 도용도 바로 조회

clean.kisa.or.kr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부정 사용됐는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역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역 외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통장계좌번호 사용 내역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 확인 시 부정 사용 내역을 발견하면 삭제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중국 해커 등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국내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기관을 KISA 외에 네이버, 다음 등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차보험료↑ 손해보험료↓

다음달부터 적용… 4대악 보험 한달 뒤 출시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고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내리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0%, 3% 안팎으로 인상한다.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안팎으로 올릴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

장기 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장기 손해보험료의 경우 11%, 일반 손해보험료는 5%, 상해보험료는 15%가량 인하된다.

다만 암 발병률과 진단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인상된다.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일반 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 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도 이뤄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후 취형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해 부가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4대악보험도 선보인다.

단 애초 3월 출시를 목표로 했던 4대악보상보험은 금융 당국과 현대해상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4월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1883호(2013.8.13) [13-A-CL-305]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지금, 라이나에서 실버만을 위한 다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1~80세라면 100세까지 길게 다양한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45~70세라면 경증치매로 한 번 중증치매로 한 번 두 번 보장

라이나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 담 문 의

080-325-1100

■(무)실버암보험(갱신형) *갱신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보장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무)OK실버보험(갱신형)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갱신가능 최고나이 81세) *의적질문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임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무)THE큰보장실버보험 *가입나이 : 45~70세까지 가입가능, 80세까지 보장 *2년 이내 경증치매 진단 시 계약 취소 가능, 2년 이내 중증치매 진단 시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만 지급 *경증치매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 검사(CDR) 점수가 1 또는 2인 경우를 말하며, 중증치매는 동 인지기능검사(CDR)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무)재해골절특약, (무)재해입원특약 선택 가입 가능 (단, 재해 골절의 경우, 치아파절은 제외) *(무)실버특정수술보장특약 선택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수술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가입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공통사항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소장펀드도 '팽' 당하나

열흘간 7만8000계좌에 74억 유입 그쳐… '제2 재형저축' 우려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출시가 2주째를 앞둔 가운데, 일부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좌수로는 당초 기대를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가입 금액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평가다.

27일 증권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0개 자산운용사가 지난 17일 출시한 소장펀드 45개에 총 74억9100만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인기를 끈 상품은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와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으로 설정 후 각각 25억원, 11억원 가까이 유입됐다.

이 기간 판매 계좌 수는 7만8000여 개를 넘어섰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선을 보인 소장펀드가 양호한 초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질 가입 금액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출시 초기에 반짝 관심을 끌었다가 기억 속으로 사라진 재형저축의 전철을 밟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지난해 3월 약 133만 좌가 개설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같은 해 12월까지 164만 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재형저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 목적의 금융투자 상품이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투자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원하는 혜택에 따라 중복 가입할 수도 있다.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소장펀드가 소득공제라는 커다란 혜택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가입 자격을 더 완화해야 한다"며 "5년 이내 환매하면 기존 혜택에 추징세를 물어야 하는 점이나 가입 자격이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소장펀드에 가처분소득을 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다"며 "중장기 가입 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직장 초년생 등의 목돈 마련에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짝퉁 공구류 조심하세요 2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산 짝퉁 공구류를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유명 상표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3개 조직 13명을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전자파 'PC > 노트북'

찐순이 주부 경제학

집 안에 전기 제품이 하나둘 늘수록 전자파에 대한 걱정도 함께 늘어난다. 생활 곳곳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TV는 화면 크기에 비례해 전자파가 방출된다. 때문에 29인치 이상 TV를 보는 가정은 전자파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분이 있는 물질은 전도성이 있어서 전기장 일부를 흡수한다. TV는 주변에 잎이 많은 활엽수나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을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TV를 보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자파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거리를 둔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트론이 있다. 이 부근에서 강한 자계가 발생하므로 작동 중일 때는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또 일반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전자파의 위험이 적다. 전기장판이나 전기요처럼 신체에 밀착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저전자파 방출 제품을 골라 사용하는 게 전자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백열등의 경우 형광등보다 전자파가 훨씬 적게 나온다. 따라서 아이 방 전등은 가능한 한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 방에 스탠드를 둘 때는 머리맡보다는 다리 쪽에 두고, 부득이하게 머리맡에 둘 때는 최소한 25㎝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 전자파 차단 앞치마나 조끼 등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가로수길 '영국축제' 손짓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주한영국대사관 주최로 '그레이트 페스티벌(GREAT Festival)'이 열리고 있다. 영국 국가 홍보 캠페인(GREAT CAMPAIGN)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가로수길 내 입점한 영국 브랜드와 펍(Pub)에서 영국의 분위기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도 규제 풀기 바람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금융권에서도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앞으로 공동 검사를 실시,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분야의 체감도 높은 규제 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 기획부, 영업 현장 등을 직접 조사해 법령이나 규정상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한하거나 규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우선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전화·구두 지도 등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 등을 통한 숨은 규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기간 지연, 업무 위·수탁 등 신고 사항에 대해 근거 없이 접수를 거절하는 관행 같은 감독 당국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사항도 접수 중이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 개인 등 실질적인 금융 수요자들이 금융회사 및 금융공기업 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원기자 pjw89@

김중수 총재 송별 간담회 "난 항상 비난·질시의 대상"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기간 중 논란을 부른 파격 인사에 대해 "조직의 장을 아홉 번째 하는 것인데, 저는 항상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었지 칭찬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김 총재는 지난 26일 저녁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송별 만찬간담회를 갖고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인사와 관련,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다"면서 "목적을 정해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재임 기간 금리정책 '실기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기자

블랙 루프 스킨 장착… 튜닝 필요없네

렉서스 하이브리드카 뉴 CT200h 시선집중

디젤차가 득세하고 있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렉서스가 하이브리드카로 다시 승부수를 던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렉서스는 26일 해치백 시장을 겨냥한 뉴 CT200h(사진)를 선보였다. 기존 CT200h 모델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한편, 편의 장비를 보강하고 가격까지 낮춰 경쟁력을 높인 것. 앞모습은 뉴 IS와 비슷한 스포티한 모습으로 단장했으며, F 스포트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미국·일본과 달리 수입 모델에는 모두 블랙 루프 스킨을 적용했다. 이 디자인은 보통 젊은층에서 외관 튜닝할 때 많이 선택하는데, 뉴 CT200h에는 기본으로 적용됐다.

실내에도 변화를 줬다. 슈퍼카 LFA 스타일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가죽을 덧댄 기어노브를 장착했고, 팝업식 모니터를 고정식으로 바꿨다. 또한 두 트림 모두 대나무 숯을 재료로 한 10개의 스피커를 적용했다.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을 보강하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가격은 내려갔다. 슈프림은 210만원 낮춘 3980만원, F 스포트는 410만원 낮춘 4490만원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이 가격대의 시장에는 다양한 수입차가 포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골프, 푸조 308,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BMW 1시리즈, 볼보 V40 등이 바로 그 주역들이다. 3000만~4000만원의 가격대에 자리하고 있고 해치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CT200h가 이들 모델과 구분되는 점은 동급에서 유일하게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유럽 해치백이 대부분 디젤 모델로 승부를 거는 것과 대비된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정숙성에서 디젤 모델보다 월등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동급에서 가장 적은 91g/km에 불과하다. CT200h의 연비는 도심 18.6km/ℓ, 고속도로 17.5km/ℓ, 복합 18.1km/ℓ로 디젤 모델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높아진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CT200h가 수입차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나리타·홍콩 누빌 아시아나 A380 2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에어버스 도색공장에서 도색을 완료한 아시아나 A380 1호기가 격납고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 비행기는 6월부터 단거리 노선인 나리타, 홍콩 노선에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삼구 회장 '다시 아시아나로'

4년만에 대표이사 복귀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지난 2010년 3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4년 만의 복귀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주총에 이어 이사회를 열고 이들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 박삼구·김수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기존 윤영두 대표이사는 물러났다.

이날 주총에서는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이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와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총장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은 주총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돼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며 "이번 주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 참석과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2대 주주인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장이) 어떤 근거로 과반이 찬성했다며 가결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총 의장을 맡은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금호산업이 당사 의결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담당을 통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네이버는 '대기업 임원 사관학교'

자회사 대표이사 SKT·삼성·LG전자로 스카우트

IT업체인 네이버가 국내 대기업들의 '임원 사관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원조 임원사관학교인 삼성 출신이 세운 네이버가 대기업에 다시 임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서치마케팅(NSM)의 조영환(47) 대표이사가 다음달 SK텔레콤 마케팅 인텔리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버추어코리아 상무로 일하다 2011년 네이버에 합류한 조 대표는 SK텔레콤에서 처음 시도하는 고객 마케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윤대균(53) 전 NHN테크놀로지서비스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미디어솔루션센터(MSC)의 전무로 명함을 바꿨다.

네이버 임원들을 향한 대기업의 러브콜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네이버 서비스 책임자였던 함종민(51) 전 이사를 상무로 영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NHN 한게임에서 게임 사업을 주도하던 김규호(52) 전 이사를 전무로 스카우트했다.

SK텔레콤도 2012년 네이버 검색광고 플랫폼을 담당하던 위의석(50) 전 본부장을 상품기획단장으로 영입했고 LG전자도 같은 해 네이버 포털서비스 운영을 총괄하던 최성호(52) 전 본부장을 스마트 비즈니스 그룹장(전무)으로 모셔왔다.

업계 관계자는 "3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라인과 국내 언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이버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려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벤처로 시작한 네이버가 대기업에 임원을 공급할 정도로 컸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표주박 깨고 골드바 받아요
27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모델들과 어린이들이 표주박에 숨겨진 금박을 찾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봄 정기 세일을 맞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대박 이벤트'를 개최, 금박을 찾는 사람에게는 금 10돈과 금 5돈 등 골드바를 준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50대도 디지털 세대

SNS 이용률 39%로 급증

50대 이상의 디지털 신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실시간 메시지 이용률은 전년(63.2%)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81.2%로 조사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은 전년(26.2%) 대비 12.9%포인트 증가한 39.1%를 기록했다.

이처럼 50대 이상의 디지털 신중년층 활약에 힘입어 전체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 이용률도 지난해 90.2%를 기록하며, 전년(75.5%) 대비 크게 늘었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 정보와 관련, 언론·뉴스 정보(52.6%), 공공 서비스 정보(54.9%)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쇼핑·물품·서비스(33.0%), SNS 정보(32.6%)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및 콘텐츠 무단 이용 등 온라인 일탈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은 전년보다 높아졌고, 온라인 일탈 행위 자체도 감소했다.

반면 콘텐츠 무단 이용의 경우 전년 대비 심각성 인식도는 개선되고 경험률도 줄었으나 여전히 타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기자

LG유플 신입 100명 공채

LG유플러스가 올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네트워크, 영업 등 모든 분야 총 100여 명의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 5주간의 인턴십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 최종 면접에 합격하면 졸업 시기에 따라 올해 9월 또는 내년 1월에 입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올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이며, 기술·네트워크 분야를 제외하고 전공은 무관하다. 마케팅 분야의 경우 공학·경영학 복수전공자를 우대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장형 인재 발굴을 위해 지방 근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신입사원 프로그램 '캠퍼스 캐스팅'을 신설했다.

최근 상암 사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채용박람회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올해 처음 선보이는 캠퍼스 캐스팅은 지방 소재 대학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없이 현장 면접으로 영업(B2C), 네트워크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 강원·충남·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충북·제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unique@

'엠코 흡수' 8위 건설사로

현대엔지니어링 합병법인 다음달 1일 '현대家 상징' 계동 둥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 법인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1일이면 이 합병 회사는 연간 매출 6조원의 업계 8위 종합건설사로 뛰어오르게 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고 합병 법인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어 4월 1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 법인의 명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유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 합병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새로운 대표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합병 법인 대표로는 손효원 엠코 사장과 김위철 엔지니어링 사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손 사장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이 회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회사 특유의 전문성과 합병이 엔지니어링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두 사장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각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른 만큼 각자의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예 그룹 차원에서 제3의 인물을 낙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병 법인이 출범하면 현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 입주한 현대엠코 본사 임직원 450여 명도 계동 현대 사옥으로 이전하게 된다. 앞서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먼저 목동을 떠나 계동 사옥 신관으로 옮겨왔다.

지난 1983년 완공된 계동 사옥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현대가의 상징이다.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본관과 지상 8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현대건설은 1983년 10월부터 30년 넘게 현대 사옥을 지키고 있다. 2001년 워크아웃으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간 신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홍보팀을 제외하고 전 부서가 본관으로 복귀했다. 내달 이주하는 엠코는 별관과 본관에 분산돼 입주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LG G2미니 이달말 해외 출시 LG전자는 스마트폰 G2의 변종 제품인 G2미니를 이달 말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CIS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LG전자 제공

대신저축은행 '서민금융센터' 운영

대신저축은행은 서민들의 원활한 필요 자금 대출과 부채 관련 상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채무 절감 방향을 제시하고 직장인·전문직·자영업자 대상 개인신용대출, 무담보 무보증의 아파트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정부 햇살론, 개인 사업자를 위한 해드림론 등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고객들의 채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에게 부채 관련 상담과 필요 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용 번호 (1644-8311)를 이용하거나, 대신저축은행 지점 또는 홈페이지(www.daishinbank.com)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지점망을 토대로 서민 밀착형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정기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며 서민들의 안정적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신저축은행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기자 pjw89@

외국서도 '그래그래 외환은행' CF 화제

외환은행이 '해외 네트워크'와 '외국환' 분야의 강점을 부각시킨 '그래그래 외환은행' 신규 TV 광고를 지난 3월 22일 론칭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환은행의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TV 광고는 국내 최다 해외네트워크 보유의 강점을 부각한 "해외여행도 해외 진출도 외환은행만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날개춤' 및 크라잉넛 '룩셈부르크'를 개사한 신나는 CM송으로 화제를 모았다.

올해 신규 광고는 지난해 광고 방향과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외환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들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외환은행이 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를 핵심 메시지로 외환은행의 혜택과 서비스를 믿고 해외로 떠난 고객들이 브라질, 호주, 러시아, 미국 등을 배경으로 여행, 취업, 사업, 학업 등 각자의 꿈을 펼쳐가는 장면을 담아냈다. /박정원기자

'열린 채용' 구직자는 괴로워

38% 부정… "막막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열린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4%의 구직자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8.4%는 '반대', 9.2%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열린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마다 채용 방식이 달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28.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25.9%), '불합격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해지기 때문'(20.1%),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서'(17%),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서'(7.7%) 등이 뒤를 이었다.

열린 채용을 찬성하는 구직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36.2%), '자격증 등 스펙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약'(31.5%),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20.9%),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므로'(10.6%)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가장 이상적인 채용 문화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직무적성검사 대상자 확대'(24.2%)를 꼽은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서류전형 폐지'(20.8%), '현대기아차-잡페어 5분 자기 PR'(15.2%), 'GS그룹-블라인드 면접'(8%), 'SK그룹-바이킹챌린지'(7.4%), '한화-인적성 검사 폐지'(7.2%), 'LG그룹-지방대 현장 순회 채용'(7.1%), '롯데-그룹 공채 학력 제한 폐지'(6.3%)의 순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회의중 '카톡왔숑' 끄세요

알림금지 시간 설정 기능

"카톡 왔숑!"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톡 알림 소리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정해놓은 특정 시간대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 기능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때 소리, 진동, 팝업창 등의 알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 있을 때나 중요한 회의 시간, 취침 시간 등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원하는 방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해놓으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게임 초대, 아이템 선물·조르기 등의 메시지 때문에 불편하다면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는 게임 메시지만 수신할 수 있는 '게임 메시지 수신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도전·혁신으로 새 30년"

하성민 SKT 사장 창사 30돌 의지 다져… "스마트 ICT 인프라 고도화"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하겠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하 사장은 "SK텔레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사회·협력업체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ICT 생태계 발전과 고객·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 편익 증진과 생태계 발전의 근간인 스마트 IC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SK텔레콤 임직원 모두가 더욱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이 같은 자리는 29일을 기해 맞이하는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지난 1984년 차량전화서비스(AMPS 방식)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SK텔레콤은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이후 지난해 LTE-A 상용화 등 굵직한 세계 최초 역사를 써왔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본사에 마련된 '창사 30주년 기념 전시회'에 참석해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의 이런 행보에 발 맞춰 지난 30년간 국내 이동통신 산업도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뿐 아니라 고객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변화시켰다.

한때 부의 상징이던 카폰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발전해 이동전화 보급률이 110%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에 힘입어 이용 행태도 음성통화 중심에서 초고속·고용량 데이터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30년에는 산업·경제·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ICT가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창사 30주년을 맞은 SK텔레콤은 ICT가 중심이 되는 삶과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에 부응해 혁신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와 동반성장 추진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 편익 증진과 생태계 발전의 근간인 '스마트 IC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더욱 안전한 품질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와 미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행복 동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협력을 확대해 선순환 ICT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베이비붐 세대 창업 지원을 위한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지속 실천해 동반성장 및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굳건히 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SK텔레콤이 29일을 기해 창사 30주년을 맞는다. 하성민 사장은 27일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제공

허옥 에브리온TV 서비스마케팅팀 매니저가 최근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과 TV를 연결하는 OTT와 미라캐스트가 결합된 미니 디바이스 '에브리온TV 캐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270개 채널 공짜로 보세요"

허옥 에브리온TV 매니저

휴대전화 자판을 길게 누르면 우측 상단에 작게 쓰여진 숫자 버튼이 입력된다. 이 기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누구가는 이 기능의 존재조차 모른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270여 개의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는 N스크린 업체 에브리온TV에 방문해 허옥 서비스마케팅팀 매니저를 만났다. N스크린 서비스는 TV로만 보던 방송 프로그램을 PC, 태블릿 등 다양한 기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허 매니저는 에브리온TV 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기능을 잘 알고 활용하면 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에브리온TV는 HD는 화질이 훌륭하지만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반면, SD는 요금 부담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기능을 추천한다. 방송을 소리로만 접하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현대인의 멀티태스킹 습관에 걸맞은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브리온TV는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채널을 제공한다. 나아가 방송을 보면서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하거나 할인 쿠폰을 주는 양방향 쇼핑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허 매니저는 "롯데홈쇼핑으로 시작했던 홈쇼핑 채널이 사용자들 호응 덕분에 홈앤쇼핑, GS쇼핑, 스카이 T쇼핑까지 들어섰다.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휴 관계에 따른 상시적인 할인 혜택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회사 직원이 270여 개의 채널 가운데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그는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 특성상 앱을 살펴보는데 요즘엔 에이핑크뉴스 채널에 푹 빠졌다"며 크게 웃었다. 이 채널은 에이핑크 멤버들의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승희기자 ssh814@

'올레tv' IPTV 부문 1위

KT는 자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 '올레tv'가 '2014 이노스타(INNOSTAR)' IPTV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이노스타는 전문가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혁신 상품·서비스 이미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상품에 주어지는 인증이다.

이번 심사에서 올레tv는 국내 최대 200여 개의 실시간 채널 및 15만여 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는 등 타사 유사 상품 대비 2배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한 점과 스마트 IPTV 서비스 '올레tv 스마트'의 고객 친화성·혁신성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각에서 시청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서비스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호평도 받았다. /서승희기자

프로야구 4개 구장 경기 한눈에

CJ헬로비전 N스크린 '티빙' 오픈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에서도 프로야구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됐다.

CJ헬로비전은 티빙에 '2014 프로야구 전용관'을 열고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HD급 고화질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PC 중계의 경우 '멀티뷰' 기능을 이용해 전국 4개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한 화면에서 모아 볼 수 있다. 전 경기 일정과 경기 결과 확인도 가능하며 '경기 하이라이트' 클립 영상을 통해 주요 장면만 따로 시청할 수 있다.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은 '2014 프로야구 전용관'을 오픈하고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HD급 고화질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비전 제공

모바일 중계에서는 경기 화면을 팝업창으로 전환해 카카오톡이나 웹서핑 등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주요 득점 장면 등을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하철 이동 구간처럼 TV 시청이 어려운 경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모드'도 제공한다. 다만 이 기능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SKB UHD 셋톱프리 상용화

SK브로드밴드는 초고화질(UHD) TV에서 셋톱박스 없이 UH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UHD 셋톱프리'를 다음달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UHD TV에 B tv가 제공하는 UH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셋톱박스 없이 B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셋톱프리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셋톱프리 서비스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는 스마트 TV에 이어 UHD TV에서도 셋톱박스 없이 UH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풀HD 방송 대비 4배 선명한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UHD용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UHD 실시간 채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승희기자

‘호기심 갑부’ 또 일낼까

위메프 만든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 모바일게임 사업 추진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가 모바일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통하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 창업자인 허민(사진) 원더홀딩스 대표는 위메프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관련 부서를 신설 중이다.

이를 위해 유명 온라인 게임사의 사업부 팀장급 인사를 영입했고 게임 개발과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셜커머스와 게임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 대표는 자신의 과거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믿어보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 대표는 대학 졸업 후 게임회사 네오플을 세웠고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액션게임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엄청난 인기를 모은 이 게임에 흠뻑 빠진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은 4000억원가량을 주고 네오플을 사들였다.

즉 대박 게임을 만들어본 노하우를 최근 대세인 모바일게임 사업에 적용해보자는 의도다.

무엇보다 허 대표는 위메프를 ‘한국의 아마존’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아마존은 없는 게 없는 온라인 만물상점이다.

가까운 미래에 모바일게임이 소셜커머스에서도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면 위메프가 조금 빨리 자체 제작해 서비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허 대표는 업계에서 ‘기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 역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는 1999년 서울대 최초로 비운동권 출신으로 학생회장에 당선되며 대학가에 큰 충격을 던졌고 30대 초반에 네오플을 4000억원에 매각하며 원조 ‘청년 갑부’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 마이너리그 싱글 A 수준인 미국 프로야구 독립리그의 록랜드 볼더스에 투수로 입단해 실제 경기에서 공을 뿌렸다.

허 대표는 너클볼 대가인 필 니크로에게 이 구종을 전수받아 실전에 사용했고 지금도 메이저리그 입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곳에 전력투구를 해도 어려운 현시점에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원더홀딩스 산하 계열사에서 게임 관련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위메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롤 ‘편리한 팀 구성’ 신개념 대전 서비스

라이엇게임즈의 글로벌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새로운 대전 모드인 ‘편리한 팀 구성’을 27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편리한 팀 구성’은 모든 플레이어가 원하는 챔피언과 역할군, 포지션을 미리 설정한 후 대전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신개념 대전 검색 시스템이다.

팀을 개설한 플레이어는 팀장을 맡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팀원들의 역할군과 포지션을 조합해볼 수 있고, 팀원으로 참여하는 솔로 플레이어 역시 선호하는 챔피언과 역할군, 포지션을 결정한 후 팀을 고를 수 있어 안정적인 팀워크가 기대된다.

팀장은 상단 공격로와 정글 포지션에 2명의 플레이어를 배치하거나 원거리 딜러와 서포터를 중단으로 보내는 식의 새로운 팀 조합과 전략을 구사해볼 수 있다.

만약 팀장이 결정한 조건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면 팀원은 다른 팀을 새롭게 검색해 나갈 수 있고 팀장 또한 구상한 조건과 전략에 맞지 않는 챔피언을 고른 팀원을 내보낼 수 있다.

단 팀장이나 팀원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하게 팀을 거부하면 대전을 주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시스템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박성훈기자

포코팡 국내서 1000만 다운로드 다이아몬드 1000개 경품 이벤트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인기 퍼즐게임 ‘포코팡 for Kakao’가 국내에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포코팡’은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해외에 먼저 출시돼 큰 흥행을 거두고 국내에도 선보인 사례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개발업체가 다름아닌 국내 개발사로 알려지며 역수입된 사례로 더욱 화제가 됐으며 당시 개발사의 인력은 8명에 불과했음에도 RPG 요소 등의 도입으로 기존 퍼즐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되고 진화된 게임성으로 이용자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포코팡 개발사 트리노드 김준수 대표는 "부산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세계적인 히트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역수입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됐다"며 "퍼즐게임도 진화가 가능하고 혁신을 보여줬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00만 다운로드를 기념해 4월 5일까지 매일 주어지는 미션을 완료하면 매일 다른 게임 내 아이템, 체리 등을 제공한다.

미션에 1회 이상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추첨으로 1000명을 선정해 다이아몬드 100개를 지급하고 미션 7회 이상 완료 시에는 1000만 기념 동물을 전원에게 주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다이아몬드 1000개를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위메이드 "장애인 체육 후원합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임직원과 게임 유저 봉사단이 지난 26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방문해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원 주위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11~24일 ‘윈드러너’ ‘비행소녀’ ‘격추왕’ ‘에어헌터’ 등 4종의 게임에서 ‘위메이드 GIVE11탄, 2014 달리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1800만여 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 제공

야구 경기처럼 ‘프야매’ 업데이트 생중계

홈페이지에 실황 공개 화제몰이

‘게임 업데이트 과정을 생중계한다.’

이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에 게이머들이 열광하고 있다.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야구 매니저’(이하 ‘프야매’)가 27일 오전 8시부터 대규모 업데이트 실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자 ‘손흥민’ ‘갤럭시S5’ 등 이슈 메이커를 제치고 한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프야매 홈페이지(bm.gametree.co.kr)를 통해 볼 수 있는 이 업데이트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프야매 개발팀과 사업팀 등 관련 부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물론, 개발진의 깜짝 미니 인터뷰도 담겨있다.

생중계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도 뜨겁다. "새로운 카드 디자인이 멋있게 나온 것 같아 빨리 만나보고 싶다" "대규모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일일 로그인 보상 개편, 리그 순위 접근성 증대 등 사소한 사항들도 많이 개편해서 유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프야매는 이날부터 채널링 서비스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게임포털 ‘플레이엔씨’(kr.plaync.com)에서도 즐길 수 있다. 플레이엔씨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 없이 프야매를 이용할 수 있고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 소울(블소)’ 등 엔씨소프트 4대 MMORPG와 프야매를 같이 플레이하면 푸짐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진화하는 허리·목디스크 치료 '10분만에 끝'

고주파 특수 내시경 활용 재발·터진 경우에도 효과

유명 연예인 가수 K씨는 1개월 전부터 심해진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및 대학병원을 찾아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다. 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말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이 수술을 반대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여러 유명 병원을 찾아 가격이 비싼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신경 성형술, 추나 요법 및 침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런 시술은 일시적인 통증 해소만 가져올 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시 시작됐다. 이에 K씨는 수술을 결심하고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K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치료를 받은 K씨는 상태가 곧바로 호전돼 치료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이승주(오른쪽)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현재 K씨는 무리 없이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 가수 K씨 시술 후에 '런닝맨'에 같이 출연 중인 유명 배우 L씨와 가수 G씨도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찾아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도 현재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인병·노인 환자도 치료 가능해

이처럼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더욱이 강남초이스병원은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 환자 및 노인들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술은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 넣어 직접 아픈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즉 이 시술은 부분 마취로 시술이 진행돼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전문의가 직접 내시경으로 병변의 염증을 볼 수 있어 작은 병변까지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환자 맞춤형 근본 치료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주로 찾는 척추관절 치료병원으로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또 시술 이후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화·체계화시켰다.

아울러 강남초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척추관절 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여의도점 02)786-2200·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5회 말 선크림 한번 더 발라주세요

야구팬 피부관리 요령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프로야구가 시작된다. 야구는 야외 스포츠인 데다 경기 시간도 긴 편이라 관람 전 준비할 것이 많다. 긴 시간 응원에 대비한 간식거리는 물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무릎담요와 같은 방한용품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피부 건강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낮 경기 내내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고 기미·주근깨와 같은 색소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장시간 야외에 있으면 가려움증은 물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는 필수

낮 경기를 보러 간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경기 관람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5회가 지나 구장 정리를 하는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덧바르는 것이 도움된다.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차단지수가 약간 더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뿐 아니라 귀 뒤쪽이나 목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미세먼지 범벅…꼼꼼한 세안을

야구 관람 후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외선과 건조한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피부 각질층의 수분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보습과 진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가 급격히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가 자주 찾아오는 봄철 야구 관람 후에는 피부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는 세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장품의 잔여물과 각종 유해 먼지, 노폐물 등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거품을 내 깨끗이 세안해야 한다.

하지만 비누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타월로 세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세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오래 여러 번 씻는 것이 좋으며 먼저 손을 씻어 세균이나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안 후에는 인체의 자연 보습인자 성분과 유사한 보습제를 듬뿍 발라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자외선에 자극을 받은 상태라면 마스크팩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야 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목청껏 응원 중 미온수 한모금

성대 다치지 않으려면

오매불망 프로야구 개막만을 기다린 야구 팬들은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재미와 더불어 목청껏 함성을 내지르는 응원을 좋아한다.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청 높여 하는 응원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성대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평소보다 과도한 발성을 장시간 내지르다 보면 성대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다양한 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장시간 소리 지르다 보면 성대 모세혈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대 모세혈관 출혈은 경우에 따라 급성후두염과 후두혈관 팽창, 성대결절 등 다양한 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출혈까지는 아니더라도 점막 밑의 '라인케 공간'이라는 곳에 조직액이 고이게 되는 성대 부종이 발생하면 목소리가 심하게 잠기기도 한다.

또 성대가 갑자기 심하게 진동하면 성대 안쪽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성대폴립(물혹)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성대폴립은 성대결절과는 달리 단 한 번의 고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응원을 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챙겨야 한다. 목소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물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응원하는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마셔 성대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키면 과도한 진동에 견딜 수 있다. 단 차가운 물은 성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삼가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오리진스 "굿바이~미세먼지!"

예약 방문시 클렌저·스크럽·세럼·크림·오일로 '미세먼지 제로 서비스'

최근 서울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찍는 등 4월까지 미세먼지와 황사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로 인해 피부트러블, 호흡기 질환 등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중금속 성분을 함유한 데다 매우 작은 입자라 흡착력이 강해 모공 속까지 파고들어 피부를 자극 시키기 때문이다.

오리진스에서는 건조함·홍조·뾰루지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제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오리진스 매장 내에서 진행되는 마사지 서비스로 지속되는 미세먼지 주의보 속에서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다.

피부 방어력 및 저항력을 높여 피부를 건강하게 개선해주는 일명 피부가 마시는 보약 세럼, '닥터 와일 메가 버섯 세럼'을 중심으로 해 같은 라인의 클렌저와 크림은 물론 마무리로 119 보습 오일까지 얼굴에 직접 마사지 서비스를 받는 무료 서비스다.

클렌저부터 스크럽, 세럼, 크림, 오일로 이어지는 오리진스 전문 가이드의 숙련된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미세먼지로부터 힐링된 피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제로 서비스는 3~4월 두 달간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코엑스점, AK플라자 분당·수원점에 평일(월~목요일)에 한해 미리 전화 예약을 한 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정혜인기자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손짓

리복은 이색 장애물 통과 경기인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를 오는 5월 11일 강원도 홍천의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된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다.

스프린트 레벨은 5㎞의 거리에 총 15개의 장애물로 이뤄지며 스파르탄 레이스는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엘리트 부문에서 남녀 각각 200명, 일반 부문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인터파크 홈페이지 및 스파르탄 레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받는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포카리스웨트 새CF 공개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의 신규 TV 광고 '도시'편을 오는 29일 공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 '도시'편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답답한 삶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주 시드니 도심 속에서 촬영됐다.

영상은 올해의 '포카리 걸'로 발탁된 신인배우 이다인(사진)이 끝없이 펼쳐진 빌딩숲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살아남기 위해 땀 흘려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 메말라야 하는 곳' '우리에게 도시는 사막보다 건조하다'는 카피가 흘러나오며 담담하면서도 강하게 메마른 현대사회를 표현했다. /김학철기자

아코르 호텔 '2박 요금으로 3박' 혜택

다음달 15일까지 예약시

국내에서 12개의 체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3=2(스리 이콜 투) 1박 무료 숙박'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은 프로모션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예약하는 고객에게 2박 요금으로 3박을 지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 이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또 아코르 호텔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회원이면 가장 먼저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일주일 먼저 예약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텔 페이지와 콜센터(00798-8521-2018)에서 확인 가능하다.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www.accorhotels.com)에 가입하면 국내 12개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과 전 세계 92개국 2700개 호텔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멤버십 혜택과 숙박 후 포인트 적립을 통해 무료 숙박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당신의 다음 여행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듀오백코리아 이젠 디비케이

듀오백코리아가 사명을 디비케이로 변경하고 인간공학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제품을 공개했다.

디비케이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듀오웨이브'를 최초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머리 받침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장착해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각 정보를 습득하고 후두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야구장 갈때 접이방석·우비·쿨러백 챙기세요

야구장 직관의 묘미는 화끈한 응원과 맛있는 음식이다. 올 시즌 야구장을 찾을 야구 팬들이라면 야구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챙기도록 하자.

보통 3시간이 넘는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에 야구장 의자는 너무 딱딱하다. 이럴 때 접어서 가방이나 쇼핑백에 넣어 휴대하기 간편한 휴대용 접이 방석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안하게 앉아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접어서 가방이나 쇼핑백에 넣을 수 있어 휴대도 간편하다.

저녁 늦게까지 경기가 이어지는 경우 기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에는 무릎담요와 같은 보온 제품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여름에는 열띤 응원으로 흐르는 땀을 닦는 데도 좋고 목에 매 야구장 스타일링도 할 수 있는 스포츠타월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또 우천에 대비해 우비를 챙기도록 한다.

야구장에서는 먹을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야구 관람의 묘미인 시원한 맥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락앤락의 '백팩 쿨러백'은 '아이스쿨팩'과 함께 사용해 더욱 오랫동안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겉으로 보기엔 남성들의 일반 백팩처럼 보여 야구장에 갈 때 매고 가도 옷맵시가 죽지 않는다.

가족 단위로 야구장을 찾는 이들을 위한 제품도 눈에 띈다. 락앤락의 '스피드쿡 삼겹살구이팬'은 야구장 잔디존 등에서 음식을 해 먹고자 하는 야구 팬들이 사용하기 좋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5년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영화<살인의 추억> 원작 연극!
날 보러와요
미스터리 추리극
v 프리뷰 특별할인 3월27일(목) ~ 4월6일(일) 전석 22,000원!
v 인터파크 TIKI회원과 예스24 유료회원은 10% 추가 할인 전석 19,800원!
2014. 3.27 THU ~ 5.31 SAT 아트센터K 세모극장
송영창 손종학 차순배 김준원 이원재 최유하 박민정 서성종 박정권 이현철 김철진 조 운 조태일 전성민 노수산나 양승환 이봉련
평일 8시 • 토 3시, 7시 • 일 4시 (월 쉼)
주관 (주)아이에스컨텐츠플레이 주최, 제작 SPS엔터테인먼트 홍보,마케팅 프로젝트H 극작 김광림 연출 변정주 무대디자인 여신동 조명디자인 이주원 분장디자인 이동민 의상디자인 최 원 음악 김아람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YES24.COM 공연 1544-6399 문의• 단체관람 프로젝트H 02-391-8226

인제 '캠핑빌리지' 세계가 반할 힐링명품

내년 축구장 32개 면적에 최고 수준 개장
조식부페·카페·수상레저·찜질방 등 시설

강원 인제군 용대관광지에 조성되는 '캠핑 빌리지' 조감도. 아래 사진은 용대관광지에 조성되는 '캠핑 빌리지' 안의 호수. /손진영기자 son@

강원 인제군 북설악 용대관광지가 우리나라 캠핑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그리고 용대리마을은 지난 26일 인제군청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열고 용대관광지에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아웃도어 리조트 '캠핑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인제군과 메트로신문사는 고용 창출 등 해당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용대관광지가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 자리에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함께하는 메트로신문사와 용대리마을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디를 가도 부러울 것 없는 경관을 자랑하는 용대관광지가 더욱 발전하고 캠핑 빌리지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메트로신문사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인제군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제군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캠핑 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연 친화적인 복합문화단지

축구장 32개에 달하는 23만1000㎡(약 7만여 평)의 광활한 부지에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조성되는 캠핑 빌리지는 인제군의 천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문화단지를 지향하고 있다. 용대관광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특히 인제군이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힐링 캠핑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게다가 충분한 여가 생활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리조트 수준의 숯가마·찜질방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카트경기장, 증기기관차 시설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천문대 프로그램과 영어 캠프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캠핑 빌리지는 서비스에서도 차별화된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숙박과 식사 등 기반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저렴하게 운영된다. 조식 뷔페와 카페 등 부대시설도 완비된다.

이외에도 수상 스포츠등의 레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고객들에게 그동안 기존 캠핑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핑 빌리지 특화 축제도 쏜다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또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역과 캠핑 빌리지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기획·개최키로 했다.

봄(고로쇠축제, 진동계곡 산나물축제), 여름(내린천 래프팅, 동해 해수욕장 셔틀버스 운영), 가을(설악산 트레킹, 십이선녀탕 등반), 겨울(황태축제, 빙어축제, 아이언웨이,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 등 계절별 축제와 행사에 맞는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3~5년의 장기 계획을 세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양평 월드DJ 페스티벌처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핑 빌리지만의 특화된 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게다가 황태·오미자·풋고추·콩·곰취 등 '인제 5대 명품'과도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숙박 연계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의 사업 제휴 방안도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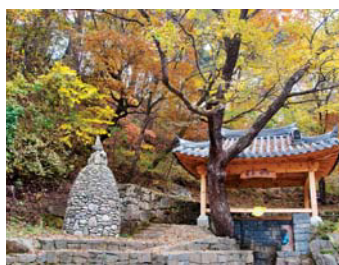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약수 천연기념물' 그맛 좀 보세

전국 소문난 인제 샘물

봄꽃과 함께 봄 향기를 내며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샘물'이다. 특히 봄의 기운을 그대로 우리 몸에 전해주는 봄 약수는 생기를 돋게 해 이맘때 유독 인기가 많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인기가 많은 인제 약수를 소개한다.

먼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에 있는 개인약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세상에서 인정받는 약수다. 철분과 칼슘·불소·마그네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과 당뇨병에 좋으며 높은 인지도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제의 명소 중 하나다.

또 기린면 방동2리에 위치한 방동약수는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물맛이 일품인 곳이다. 탄산과 망간·철·불소 등의 성분이 포함된 광동수로 위장병 치료와 소화 증진에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인제군은 이런 약수의 인기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방동약수와 개인약수를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했다. 마을과 마을을 잇던 농로와 제방길을 보완해 숲길을 만들어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방태산 미산계곡에 자리한 미산 고로쇠마을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의 고로쇠를 만날 수 있으며 한국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방태산 계곡 역시 조경동, 적가리골 등 풍광이 빼어난 유명한 골짜기가 많아 약수를 마신 후 자연을 만끽하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황재용기자

십이선녀탕·만해마을·백담사 걸으며 '봄 예찬'

미시령 옛길 따라 명소

청정한 자연으로 이름이 알려진 강원도 인제에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중 '미시령 옛길'은 인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함께 역사와 문화, 자연의 호흡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원래 미시령은 조선시대 미시파령으로 불렸던 험준한 고개로 미시령 옛길은 한계령과 함께 설악산 서쪽의 인제와 동해안의 외설악을 연결하던 유일한 길이었다. 이후 1960년대 국도로 최초 개통됐으며 지난 2006년 미시령 터널이 생기면서 미시령 옛길 트레킹 코스인 탐방로가 완성됐다.

특히 미시령 옛길 탐방로에는 십이선녀탕(사진), 만해마을, 백담사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제의 명소들이 가득하다. 탐방로가 십이선녀탕을 시작으로 용대관광지, 만해마을을 거쳐 백담사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인제가 자랑하는 십이선녀탕은 8개의 탕이 계곡을 따라 연속으로 이어져 있으며 구슬처럼 푸른 물이 84m의 계곡을 형성해 우리나라에서도 절경으로 꼽히는 장소다. 또 만해마을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마을로 만해박물관과 문인의 집 등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경쟁하지 않고 느릿느릿 산보하듯 걸어야 이 길의 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 여유와 운치가 있는 도보 여행이 가능하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광활한 풍경과 서쪽으로는 첩첩으로 연이어진 산봉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황재용기자

‘별그대’로 연기의 맛 느꼈어요

배우 도전 팔방미인 아나운서 오상진

“소속사 식구들은 칭찬만 해요. 시청자의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검사 유석 역으로 연기 신고식을 치른 오상진은 대중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BC 아나운서에서 방송인 겸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그는 올 상반기 ‘일단 띄워’ ‘댄싱9’ ‘주말N영화’ 진행을 확정 지으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KBS2 새 파일럿 ‘역지사지 토크쇼-대변인들’에 합류했다.

진행은 본업이기도 하고 평소 긴호흡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대변인들’은 아이돌 노출이 라든지 갑을 관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시청자, 출연진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녹화를 했는데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그쪽으로 특화되진 않았고 교양 예능에 적합한 위치에서 촬영에 임했다.

– SBS ‘일단 띄워’는 리얼리티 방송이다.

제작진은 브레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걱정인 건 브라질은 영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현지 교민들과도 접촉하면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주에 브라질로 떠나야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출연하는 오만석과는 예전에 인터뷰를 했고 김민준은 개인적으론 모르지만 지인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 남자 출연자와는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 박규리 등 여성 출연자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다.

– ‘별그대’ 이후의 행보가 예능 진행 쪽이다. 연기는 부차적인가?

첫 연기라 부족한 점을 느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그대’는 제작진의 제의로 오디션을 보고 합류하게 됐다. 감독과 작가가 소화 가능한 역할을 부여해준 듯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다행히 검사 역할이어서 감정선이 좁았고 기존 이미지와 부합했다. 그러나 연기를 하면서 현장도 낯설고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 주변 반응이 궁금하다.

아나운서 시절에도 진행하는 걸 모니터링을 했는데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게 나인가’ 싶어 신기하고 뿌듯하다. 친구들, 가족도 내가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도 신기해한다.

– 수입은 좋나.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았다. 작품이 잘됐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다들 한턱내라고 한다.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섭외 들어올 때마다 잘하고 싶다.

– 연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풀어진 캐릭터를 맡고 싶다.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에 자신 있다. 또 사극도 해보고 싶다. 그래도 어떤 역할을 바란다기보다는 연기에 대한 겸손한 준비를 할 시기라고 본다. 아까도 말했듯 연기 선생님과 공부할 계획이다. 특히 진행은 현장 분위기와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기는 눈이 전부다.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 아나운서 출신 전현무·김성주와 다른 행보다.

김성주 선배는 MBC에 있을 때 교육 담당 선생님이기도 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 전현무 형은 예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정말 친해졌다. 특히 서로 응원해주고 ‘별그대’ 첫 방송 후 가장 먼저 전화 온 사람이기도 하다. 자신도 ‘별그대’ 같은 한방이 필요하다면서 부러워하기도 한다. 김성주·전현무 모두 비슷한 입장이라 세 명이 만나면 애환을 털어놓으며 즐겁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적으로도 요즘은 채널이 많아졌으니까 제로섬 게임은 아닌 듯하다.

열연하는 모습 신기하고 뿌듯
다음엔 풀어진 캐릭터 하고파
전현무 형은 제가 부럽다네요
본업인 MC도 충실할겁니다 ”

– 지난해 SBS ‘땡큐’에서 MBC 퇴사와 관련해 소속감을 언급했다.

퇴사는 스스로 선택한 거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회사에 출근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확보돼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야 한다. 성격이 소심했는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려고 노력 중이다. 변죽도 많이 울리게 되고 변화하고 있다. 퇴사 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고 결과들이 좋아서 다행이다. 앞으로의 모습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겠다.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봄바람 타고 명품공연이 온다

이문세·임창정·신승훈·박정현 5월 콘서트 무대 잇따라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실력파 가수들의 공연이 대거 팬들을 찾는다.

이문세를 비롯해 신승훈·박정현·임창정에 이르기까지 베테랑 솔로 가수들의 명품 무대로 5월 공연계가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JTBC '히든싱어' 시즌 1·2에 모두 출연한 가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임창정은 데뷔 후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정규 12집 '흔한 노래… 흔한 멜로디…'를 발표한 임창정은 5월 23~24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동명의 타이틀로 공연한다. 신곡 '흔한 노래'와 '날 닮은 너' '결혼해줘' '소주 한 잔' 등 많은 히트곡들을 부르며 팬들과 추억을 나눌 예정이다.

그는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6월 7일 대전, 14일 전주, 21일 인천에서 차례로 공연한다.

신승훈

임창정

박정현

'발라드 황제' 신승훈은 단 1000명을 위한 한정판 극장식 공연 '더 신승훈 쇼 리미티드 에디션Ⅱ'를 개최한다. 신승훈은 5월 6~11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열고 미발표 곡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가까워진 객석, 공연 전용장의 최고 음향, 어쿠스틱 구성의 따뜻한 감성, 신승훈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 등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만이 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매력을 담고 있다.

이문세는 5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야외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이문세 땡큐'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서 30여 곡에 이르는 히트곡으로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다. '붉은노을'을 비롯해 '소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옛사랑' '광화문연가' '이별 이야기' 등 공연 레퍼토리 전곡이 히트곡으로 채워졌다.

'가요계 요정' 박정현은 5월 9~11일, 16~18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 콘서트 '싱크로퓨전'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유 민 에브리싱 투 미' '나의 하루' 'PS 아이 러브 유' '나의 하루' '편지할게요' 등의 히트곡으로 봄날의 설렘을 전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이문세

'판타스틱 베이비' 유튜브 1억뷰 돌파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사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판타스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27일 오후 1시 조회 수 1억3000뷰를 넘어섰다. 2012년 3월 6일 유튜브에 게시된 이후 2년여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빅뱅은 국내 남성그룹 최초로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1억 뷰 돌파 기록을 세웠다.

'판타스틱 베이비'는 빅뱅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얼라이브'의 타이틀곡 중 하나로 빠르고 강렬한 비트와 역동적인 안무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빅뱅은 '판타스틱 베이비' 외에도 16곡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했으며, 그중 5곡은 3000만 뷰를 넘기는 등 발표하는 뮤직비디오마다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여름에는 2년 만에 빅뱅의 새 앨범이 출시된다. /유순호기자

환상의 바이올린 연주부터 문워크 댄스까지

슈주-M 헨리 대단해요

슈퍼주니어-M의 멤버 헨리(사진)가 영역을 가리지 않는 활약으로 변화무쌍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군대무식자' '구멍 병사' 등의 별명을 얻으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는 29일 방송될 SBS '스타킹'에서 숨겨둔 음악 재능으로 놀라움을 전했다. 화려한 바이올린 연주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속 피아노 배틀 장면을 재현한 연주로 출연진의 감탄을 자아냈다.

헨리는 마이클 잭슨의 '스무드 크리미널'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며 문워크 댄스까지 보여줬고, 시크릿의 효성은 헨리의 매력에 얼굴을 붉히며 찬사를 보냈다. 걸스데이의 유라는 이색적인 헨리의 모습에 넋이 나갔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헨리는 또 매거진 더 셀러브리티에 화보를 공개했다. 순수한 표정과 꾸밈없는 포즈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더한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촬영과 함께 이어진 인터뷰에서 헨리는 '일밤-진짜 사나이'에 대한 질문에 "'진짜 사나이'를 통해 정말 멋있는 군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려주고 싶고, 이미지도 더 좋게 바꿔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슈퍼주니어-M의 멤버로 최근 새 미니앨범 '스윙'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2일 중국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107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불러모았다. 헨리는 작곡팀 '노이즈뱅크'를 결성해 이번 앨범에 자작곡을 실었다. 27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동한다.

/유순호기자 suno@

제2의 카라 찾아라

DSP 글로벌 오디션 개최

'아이돌 명가' DSP미디어(이하 DSP)가 '제2의 카라'(사진)를 찾기 위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

DSP는 27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채널에 DSP 월드와이드 스타 발굴 프로젝트 '2014 DSP 글로벌 오디션'의 진행 정보를 공개했다. 이 오디션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5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DSP는 젝스키스, 핑클, SS501, 카라 등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을 발굴해온 연예기획사로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찾기 위해 이번 오디션을 개최한다.

오디션의 지원 분야는 노래, 연기, 댄스, 모델 등으로 국적과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 중 우수자는 DSP의 전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정식 데뷔할 수 있다. /유순호기자

개그맨 장재영 내달 결혼

개그맨 장재영(사진)이 웨딩마치를 울린다.

장재영은 다음달 6일 논현동 스칼라티움에서 다섯살 연하인 33세 일반인 미모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년간 교제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되며 후배 개그맨인 문세윤과 한현민의 사회로 진행된다. 축가는 절친한 가수인 김경호와 고유진·혜령이 맡는다. 장재영은 "예비 신부는 단아하고 온순한 매력에 활달하고 사회성도 좋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한 장재영은 2000년대 중후반 SBS '웃찾사'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코봉이'라는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부터 '웃찾사'에 합류한 그는 후배 개그맨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인기 부활에 앞장서고 있다. 또 편의점 브랜드 개그스토리의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장재영은 "결혼과 함께 안정감도 생기고 더 책임감이 든다. 방송과 사업 등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승선 자체로 자신감"

'베이스볼 투나잇' 김선신 "야구여신 중 미모 최고"

MBC스포츠 플러스의 김선신(사진) 아나운서가 대표 야구 여신으로 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김 아나운서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MBC스포츠 플러스 2014 메이저리그 & 프로야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올 시즌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그는 "'베이스볼 투나잇'에 승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며 "올 시즌부터 기존의 '베이스볼 투나잇 야'가 '베이스볼 투데이'와 '베이스볼 투나잇'으로 나뉘어져 프리뷰부터 리뷰까지 깊이 있는 내용을 시청자들께 전달해드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 시즌부터 MBC스포츠 플러스에 해설위원으로 합류한 차명석 해설위원은 여러 중계 채널 중 MBC스포츠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나운서 미모 따라가자는 주의라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고 답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김선신 아나운서는 "(야구 아나운서들 중) 미모는 내가 최고라 자부한다"고 받아치며 당당한 '야구 여신'의 면모를 드러냈다.

'베이스볼 투나잇'은 기존과 같이 그날 경기를 분석하는 리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비시즌 때 선보였던 '베이스볼 투데이'는 올 시즌부터 낮 시간대에 정규 편성돼 중계 30분 전 경기 내용 예측부터 메이저리그 경기 분석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박신영·구새봄 등 후배 아나운서와 함께 '베이스볼 투데이'와 '베이스볼 투나잇'의 진행을 맡아 야구 팬들의 낮과 밤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밀리언셀러' 정규 편성 먹구름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밀리언셀러'(사진)가 시청률 2.8%(닐슨코리아)로 출발하며 정규 편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6일 '밀리언셀러' 첫 방송은 국민의 사연을 국민 가수가 노래로 부른다는 취지에 부합하며 착한 예능의 첫발을 내디뎠다. 작곡가로 변신한 박명수와 정재형·돈스파이크 등의 전문 작곡가, 국민 가수 주현미의 조화도 돋보였다.

그러나 다소 느린 전개와 큰 웃음의 부재가 걸림돌이다. 이날 방송에 그려진 국민 작사가 4명의 사연과 그들과 출연진의 만남은 감동을 줬지만 재미를 선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시도는 좋았는데 재미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심심한 느낌이었다" 등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구성도 개선 과제로 남아있다. '밀리언셀러' 스튜디오는 MBC '일밤-나는 가수다'와 KBS2 '불후의 명곡' 무대와 유사하고, 박명수·정재형·돈스파이크·장기하는 이미 MBC '무한도전-가요제'에서 선보인 조합이다.

'밀리언 셀러'는 현재 정규 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시청자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청자의 인생을 노래에 담아 감동을 전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SBS '쓰리데이즈'가 등장인물간의 이해 관계가 얽히며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드라마의 핵심 인물인 박유천·손현주(왼쪽 사진), 최원영(오른쪽)

수목극 '쓰리데이즈' 본격 대통령 지키기 프로젝트 스타트

"촘촘한 전개 되레 답답"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제2막이 올랐다.

신규진(윤제문)·김도진(최원영)이 야욕을 드러내고 이동휘(손현주)·한태경(박유천)이 한 배에 타며 본격적인 '대통령 지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강점인 촘촘한 전개가 오히려 시청자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신규진은 '쓰리데이즈' 7회(26일)에서 재신그룹 회장 김도진에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나만의 정권"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대통령의 적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방송에선 대통령 저격 사건 후 72시간이 흘렀고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상정됐으며 저격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기밀문서 98은 소각됐다. 대통령과 한태경의 아버지이자 경제수석이었던 한기준(이대연)의 첫 만남이 그려지는 등 6회까지 풀리지 않았던 인물들의 과거도 일부 밝혀지면서 저격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처럼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전개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으나 7회까지 시청자는 엄청난 인내를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전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스릴러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 내내 긴장감을 조성함에도 모든 게 불확실한 탓에 '쓰리데이즈'의 시청률은 상승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11.3%(26일 닐슨코리아)로 경쟁작 KBS2 '감격시대'(11.6%)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정려원 "미술 진행자 수준 아니에요"

'아트 스타 코리아' MC 맡아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이 TV 속으로 들어온다.

배우 정려원의 MC 도전으로 화제를 모은 온스타일 '아트스타 코리아' 제작발표회가 27일 CGV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공동 MC인 모델 송경아와 심사위원을 맡은 유진상 계원예술대 교수, 홍경한 경향 아티클 편집장, 미술평론가 반이정 등이 참석했다.

그림 에세이를 낼 만큼 미술에 열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정려원은 "미술을 좋아하지만 진행자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심했다"며 "대중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에 MC 제의를 수락했다. 앞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MC 송경아 역시 미술 작가 겸 웹툰 작가로서 국제 아트 페어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경아는 "조영남 선배와 함께 화보 촬영을 했었는데 내 사진을 작품에 쓴 걸 봤다"며 "예술에 열정 넘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회화·조소·비디오아트·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15명이 경쟁을 펼치는 '아트스타 코리아'는 오는 30일 첫 방송 된다. /김지민기자

모델 송경아(왼쪽)와 배우 정려원이 27일 CGV여의도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의 예술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트 스타 코리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한도전' 응원곡 공개

인천 아시안게임, 브라질 월드컵 등 올해 열리는 스포츠 빅 이벤트를 위해 MBC '무한도전'이 응원에 나선다.

'무한도전'은 29일 올해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무한도전 응원단'의 공식 응원곡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무한도전' 응원곡은 출연자이자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 길이 음악부장을 맡아 직접 만들었다.

응원곡 선정에 앞서 길은 직접 작곡한 여러 개의 후보곡들을 멤버들에게 공개했다. 멤버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공식 응원곡은 길이 가수로서 보여줬던 리쌍의 음악 색깔과는 전혀 다른 힘차고 경쾌한 곡으로 알려졌다. /김지민기자

‘어벤져스2’ 되고 ‘소녀무덤’ 안되고

‘어벤져스2’ 서울 촬영 논란

1 역차별 : “할리우드 영화 전폭 지원… 국내 작품은 홀대하나”
2 경제효과 : 국가브랜드 2조원 상승 전망… 일각선 수치 의문
3 교통통제 : 보름간 마포대교 등 곳곳 통제… “시민 불편” 불만

30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사진)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교통 불편부터 경제적 효과 거품, 역차별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역차별

서울 촬영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교통 불편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던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킨 건 한국 영화 역차별 문제다.

27일 영화 ‘소녀무덤’ 측은 “지하철 장면 촬영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았다가 돌연 취소됐다. ‘어벤져스2’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자국 영화는 홀대해 억울하다”며 역차별을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의 답변은 “전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한다”였다. 그러나 ‘어벤져스2’가 14일간 서울시의 교통 통제 속에 대대적인 촬영을 하고 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까지 논의되는 것과 비교하면 자국 영화를 역차별하는 처사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적 효과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으로 한국이 얻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촬영으로 2조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예측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62만명 증가하고 이를 통한 소비 지출도 연간 약 8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득력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어벤져스2’는 아름다운 배경을 과시하는 영화가 아니라 오락영화인데다 대부분의 분량이 추격신과 거리 파괴신이라 관광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교통 통제

서울 촬영으로 인한 교통 통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 측은 막대한 홍보 효과를 이유로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을 결정했다. 이같은 대규모 서울 촬영은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30일 마포대교를 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드컵북로, 강남대로 등을 전면 통제한다.

그러나 불분명한 홍보 효과로 인해 1000만 명이나 되는 서울 시민들이 보름이나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시민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연극 ‘내 아내의 모든것’ 류현경·심은진 출연한다

배우 류현경(왼쪽 사진)과 심은진(오른쪽)이 연극 ‘내 아내의 모든 것’에 출연한다.

이 연극은 2012년 개봉해 460만 관객을 동원한 임수정·이선균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류현경과 심은진은 영화에서 임수정이 연기했던 정인 역을 연기한다.

정인은 아름다운 외모에 섹시함, 요리 실력까지 겸비했지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아내다. 정인과 이혼하길 원하는 남편의 계략으로 전설의 카사노바 성기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동안 ‘방자전’ ‘쩨쩨한 로맨스’ ‘연애조작단; 시라노’ 등에 출연하며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한 류현경은 이번 작품으로 데뷔 이래 처음 연극에 도전한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으로 연극 ‘연애시대’, 뮤지컬 ‘온에어 초콜릿’ ‘위대한 캣츠비’로 무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심은진은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연극으로 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고, 나다운 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캐릭터 연구 및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공연은 5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DCF대명문화공장에서 열린다. 류현경과 심은진 이외에 김도현·김재범·전병욱·조휘가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김기덕 ‘신의 선물’ 내달 개봉

김기덕 필름의 2014 첫 번째 라인업 ‘신의 선물’(사진)이 다음달 개봉을 확정했다.

‘신의 선물’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여자와 원치 않은 아이를 가져 곤란에 빠진 소녀의 운명적인 만남과 신비로운 기다림을 그린 작품이다.

김기덕 감독의 다섯 번째 각본·제작 영화로 김기덕 사단의 유일한 여성 감독 문시현이 연출을 맡았다. 문 감독은 ‘시간’ ‘숨’의 연출부, ‘피에타’의 조감독을 맡아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여자 승연 역은 영화 ‘뫼비우스’에서 소름 끼치는 1인 2역으로 연기력을 입증한 이은우가 맡았으며,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진 소녀 소영 역은 tvN ‘응급남녀’에서 골칫덩어리 동생 오진애로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예 전수진이 연기했다.

/탁진현기자

‘캡틴 아메리카’ 인기 캡!

개봉 첫날 16만6500명 관객 동원… 박스오피스 1위 올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이하 ‘캡틴 아메리카’·사진)가 개봉 첫날부터 관객몰이에 속도를 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캡틴 아메리카’는 개봉 첫날인 26일 16만6495명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사전 시사회를 포함한 누적 관객 수는 16만7730명이다.

개봉 첫 주 관객 100만 명을 넘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던 ‘노아’는 6만6360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캡틴 아메리카’는 2011년 개봉한 ‘퍼스트 어벤져’의 속편이다.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활약한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번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벤져스’의 미국 뉴욕 전투 이후 실드의 일원으로 현대에 적응해 살아가던 캡틴 아메리카가 강력한 적인 윈터 솔져(세바스찬 스탠)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았다.

‘어벤져스’의 속편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서울 촬영이 30일부터 시작되고, 이 영화에 한국 여배우 수현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51만 명의 관객 동원에 그친 전편 ‘퍼스트 어벤져’의 흥행 기록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크리스 에번스가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출연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해 더욱 흥행 전망이 밝다.

/탁진현기자

영화 ‘노수홍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비(오른쪽).

비 주연 ‘노수홍안’ 관객맞이

가수 비가 영화 ‘노수홍안’의 크랭크인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27일 비 소속사 측은 “지난 26일 비가 출연한 영화 ‘노수홍안’의 제작발표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됐다”며 “현지 개봉일이 11월 11일로 공식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노수홍안’의 주인공 비와 상대역을 맡은 유역비, 중국 7대 감독으로 손꼽히는 가우시시 감독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비는 “중국 최고의 영화인들과 작업하게 돼 기쁘다”며 “가우시시 감독의 사극과 유역비가 출연한 ‘천녀유혼’을 봐서 이들에게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성운기자 ysw@

여수 – 임진왜란때보다 더 많아진 거북선

권기봉의 **도시산책** <74>

지난달 전남 여수 연안여객터미널 근처에 거북선이 등장했다. 전체 길이 35.3m, 선체 길이 26.2m, 폭 10.6m에 달하는 '실물 크기' 거북선이라 한다. 건조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얼마 전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도 전체 길이 15m짜리 거북선(**사진**)이 자리를 잡았다.

사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거북선의 수는 임진왜란 당시보다도 많다. 학계는 임진왜란 당시 건조된 거북선 수를 대략 5척에서 7척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남 여수를 비롯해 경남 통영과 남해, 창원 등 경상남도에 있는 거북선까지 모두 10척이 넘는다.

침투력뿐만 아니라 특유의 방어력 때문에 굳이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보다 많이 건조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북선이 정작 21세기 들어 붐을 이루는 이유?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역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거북선 건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거북선을 매개로 관광 수입을 늘려볼까 하는 생각과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문제는 건조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마저도 엉터리라는 점이다. 지난달 준공한 여수 거북선 건조에 들어간 예산이 26억원, 앞서 경상남도가 6척의 거북선을 짓는 데 쓴 돈은 12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모양도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상태고, 계획과는 달리 수입 목재를 써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상남도는 임진왜란 때 음식을 재현하겠다며 '이순신 밥상'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예산만 받고 폐점하는 식당들이 속출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420여 년 전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과 공포, 그리고 거북선에 걸었을 기대를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 건 사실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4	3		
4	8				2		9	
	1	9						
6			7		1		2	
5								9
	4		3		9			7
						9	5	
	2		6				8	3
		5	4	1				6

	4			5				6
8		6	7				4	
7			9				2	1
	2		5		3	6		
				8				
		8	2		9		1	
6	3				8			2
	7				6	5		3
2				7			6	

스도쿠 정답

2	5	7	9	8	4	3	6	1
4	8	6	1	3	2	7	9	5
3	1	9	5	6	7	8	4	2
6	9	3	7	4	1	5	2	8
5	7	1	8	2	6	4	3	9
8	4	2	3	5	9	6	1	7
1	6	8	2	7	3	9	5	4
7	2	4	6	9	5	1	8	3
9	3	5	4	1	8	2	7	6

9	4	2	8	5	1	7	3	6
8	1	6	7	3	2	9	4	5
7	5	3	9	6	4	8	2	1
4	2	7	5	1	3	6	9	8
3	9	1	6	8	7	2	5	4
5	6	8	2	4	9	3	1	7
6	3	5	1	9	8	4	7	2
1	7	9	4	2	6	5	8	3
2	8	4	3	7	5	1	6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다단계 실망…뭘해야 할지요 사무·관리 직종 찾아 보세요

배두산산 남자 68년 11월 11일 양력 밤중

Q 만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여쭙습니다. 수많은 다단계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했지만 전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100세 수명 시대인데 여생을 뭘 하면서 지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리 지급받아서 없습니다.

A 자신의 능력으로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도덕적으로 권장할 정도의 일이 되어야 귀하의 자유로운 활동력으로 뜻을 이뤄갈 수 있고 그 일이 수익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단계나 방판, 보험, 기능식품, 화장품처럼 물건 파는 영업 능력은 귀하에게는 부족합니다. 다단계 등 그동안 수고를 뒤로하고 정부 정책에도 부합되고 일반 주식회사처럼 사무나 관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차선책은 편인격(偏印格)으로 직업 적성면에서는 직장 생활도 자영업도 아닌 중간 형태의 프리랜서형으로 자기 중심적인 일도 적합합니다. 처음에 월급이 적다 할지라도 4대 보험을 받고 연금 받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집 팔아 친구와 사업하려는데 오너역할 안맞아 투자 없을듯

복바치 남자 62년 11월 9일 양력 자시

Q '복을 바쳐야 복을 준다'고 했지요. 저는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없고 강남에 집이 한 채인데 친구가 특수 작물을 재배해서 가공하여 파는 사업을 하자는데 자금을 같이 대줘야 합니다. 집을 팔면 30억원은 될 것이지만 최소한 살 집은 마련해야 하고 나머지를 투자해야 할 텐데 겁이 납니다.

A '구름에 가린 태양'의 형상으로 마음속에는 지혜와 모사(謀事)가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단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잘 처세하는 일면도 있군요. 언제나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관격 생일지에 공망(空亡)으로 오너 역할은 할 수 없고 왕사(王師:왕을 도와주는 선생) 역할을 해야 상대도 잘되고 귀하도 발복할 수 있는 명입니다. 관고(官庫)에 천라지망살은 농업과 인연은 있으나 투자는 돈이 묶이므로 나머지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재물운이 사묘절(死墓絶:사망해서 묘지로 들어가 단절됨)로 가고 있어서 투자는 안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8일 (음 2월 2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욕심부리면 마음만 상한다. **60년생** 사람 추천은 가능한 한 재고할 것. **72년생** 변동이 심할 땐 유연한 처신이 좋다. **84년생** 발표할 땐 준비 철저히 하라.

49년생 자녀의 용돈에 지화자~. **61년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은혜 갚아 기쁘다. **73년생** 문서 일은 토씨 하나도 잘 살펴라. **85년생** 친구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0년생 이성 잃으면 망신 자초한다. **62년생** 정보에 밝은 친구 덕에 야호~. **74년생**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후회 없다. **86년생** 막힌 일은 선배나 상사에게 도움 청하라.

51년생 몸도 마음도 가벼운 하루~. **63년생** 부적절한 부탁은 거절하는 게 좋다. **75년생** 벅찬 일은 용쓰지 말고 쉬엄쉬엄할 것. **87년생** 통하는 친구와의 한잔이 즐겁다.

52년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다. **64년생** 아쉬워도 지난 일은 잊어라. **76년생** 막혔던 길이 뚫린 형국이다. **88년생** 모처럼 기회가 왔을 때 원 없이 달려보자.

53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65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77년생** 양보할 일이 있으면 쿨하게 하라. **89년생** 프러포즈는 서두르면 자살골 넣는다.

42년생 자손이 찾아와 즐겁게 한다. **54년생** 구상한 계획에 지원군 등장~. **66년생** 불리한 문서와 관련된 일은 급반전된다. **78년생** 마음먹은 일은 일단 시작하라.

43년생 마음의 병을 잘 다스려라. **55년생** 어렵게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67년생** 나를 표현하는 데 투자 아끼지 마라. **79년생** 직장인은 사람 때문에 고심한다.

44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 날아온다. **56년생** 배우자와의 마찰은 피하라. **68년생** 아랫사람과 맞서면 잃는 게 많다. **80년생** 친구의 성공에 자극받아 야망이 꿈틀~.

45년생 멀리서 좋은 소식 온다. **57년생** 투자나 매매는 관망만 하라. **69년생**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보인다. **81년생** 귀인이 도우니 승부수를 띄워라.

46년생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 마라. **58년생** 명예회복할 기회가 온다. **70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왕따 자초함을 명심할 것. **82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47년생 구관이 명관이란 말 듣는다. **59년생** 상대 속셈 파악 후에 움직여라. **71년생** 생각도 못 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83년생** 이성과의 한잔에 기분 좋은 하루~.

박병호 창이냐 김광현 방패냐

프로야구 개막전 관전포인트

문학구장서 투타대결 볼만 LG 김선우 친정 상대 선발

2014 프로야구가 29일 개막해 팀당 128경기, 총 576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9일 잠실(LG 트윈스-두산 베어스)과 인천(넥센 히어로즈-SK 와이번스), 대구(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부산(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 등 네 곳에서 열리는 개막전에는 흥미 요소가 가득하다. 다음달 1일 광주에서 KIA와 첫 경기를 갖는 NC 다이노스를 제외한 프로야구 8개 구단의 2014시즌 첫 목표는 개막전 승리다.

한 지붕 라이벌 두산과 LG의 볼거리는 선발투수다. 지난해 두산에서 방출돼 LG 유니폼을 입은 김선우가 친정팀과 개막전에서 첫 등판한다. 김선우는 2009년 4월 4일 LG 트윈스와의 개막전 선발로 등판하기도 했다.

반면 두산은 2011년 김선우와 31승(김선우 16승·니퍼트 15승)을 합작했던 더스틴 니퍼트를 선발로 내세웠다. 니퍼트는 한국 무대에 등장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두산 개막전 선발로 낙점됐다.

박병호

김광현

인천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진다. 왼손 에이스 김광현(SK)과 토종 홈런왕 박병호(넥센)가 맞대결을 펼친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올 시즌을 시작한 김광현과 3년 연속 홈런왕 자리를 노리고 있는 박병호의 활약이 기대된다. 박병호는 지난해 2년 연속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광현과 박병호의 통산 맞대결 성적은 26타수 8안타(타율 0.308) 1홈런이다. 그러나 김광현이 어깨 부상에 시달리기 전인 2007~2010년에는 10타수 2안타(타율 0.200)로 우세했다. 김광현이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고 박병호가 최고 타자 반열에 오른 2014년 투타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영호남 라이벌 삼성과 KIA는 대구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삼성 프랜차이즈 스타 류중일 감독과 해태(KIA 전신)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보급 투수 선동열 감독의 지략 대결은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선 감독은 삼성 사령탑(2005~2010년)으로 두 차례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2005~2006년)을 이끈 인연도 있다. 4연패를 목표로 하는 류 감독과 명예회복을 노리는 선 감독 모두에게 개막전 승리는 절실하다.

'70억원 사나이' 정근우와 강민호는 부산 사직구장을 뜨겁게 달군다. 포수 강민호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지난해 12월 13일 원소속 구단 롯데와 4년 총 75억원(계약금 35억원·연봉 10억원)에 계약하며 역대 FA 최고 금액 기록을 세웠다. 내야수 정근우(31)는 SK에서 한화로 이적하며 4년 최대 70억원(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에 사인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한화와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롯데가 4연승을 이어갈지, 한화는 정근우의 활약으로 롯데 징크스를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co.kr

"김연아 올림픽 판정 관련 한국측 제소 받지 못했다"

국제빙상연맹 회장 언급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의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한국 측의 제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ISU 친콴타 회장은 27일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아직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를 펼친 김연아를 제치고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금메달을 차지하자 세계적으로 판정 논란이 일었다.

국내 여론이 들끓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1일 소치올림픽 여자 싱글의 심판 구성에 대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친콴타 회장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하려면 증거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선수들에게 받을 만한 점수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심판은 전문가이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 당시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순호기자 suno@

기성용·손흥민 골 합창

기, 리버풀 상대 헤딩골…리그 3호 득점 손, 아우크스부르크전 결승골 시즌 11호

기성용이 27일 리버풀 FC와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AP 뉴시스

유럽파 태극전사인 손흥민과 기성용이 나란히 골맛을 봤다.

선덜랜드 AFC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25)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 FC를 상대로 헤딩으로 시즌 3호 골을 작렬했다.

기성용은 27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의 원정경기에서 팀이 0-2로 뒤진 후반 31분 애덤 존슨의 코너킥을 몸을 날리며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그는 1월 12일 풀럼 FC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3호, 리그 2호 골을 넣은 이후 2월15일 만에 골맛을 봤다. 이번 득점은 시즌 4호, 리그 3호 골이다. 선덜랜드는 이후 동점골 사냥에 실패, 리버풀에 결국 1-2로 패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2·바이엘 레버쿠젠)은 결승골이자 시즌 11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7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SGL 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7라운드 FC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상황에서 후반 35분 절묘한 왼발 슛으로 상대 골문을 갈랐다.

레버쿠젠은 후반 터진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2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모비스 함지훈이 SK 최부경의 수비를 뚫고 골밑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비스, 챔프전까지 1승 남았다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울산 모비스가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모비스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3차전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문태영(18점·10리바운드), 함지훈(14점·6리바운드·6어시스트·4스틸)의 활약에 힘입어 67-62로 신승했다.

2승1패로 우위를 점한 모비스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더하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다. 두 팀의 4차전은 29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이국명기자

프로농구 PO 전적 27일

SK	18	15	14	15	**62**
모비스	20	18	17	12	**67**

프로배구 전적 27일

기업은행	2	3	GS칼텍스

류현진 미 개막전 등판할 듯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발톱 부상을 딛고 본토 개막전에 나설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7일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대원근 염증으로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미국 내 개막전에 출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자리는 류현진이나 댄 하렌이 대체할 전망이다.

MLB닷컴에 따르면 2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2014시즌 메이저리그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주루 도중 오른 발톱을 다친 류현진은 발톱 절반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후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커쇼는 26일 캐치볼을 하던 중 통증을 호소했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근육 염증 진단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CJ E&M
Music Makes ONE Mnet
대한민국 뽕을 뽑다!
TROT X
Mnet 트로트엑스
오늘(금) 밤 11시 Mnet
1회보다 더 재밌는 Mnet 트로트엑스 2회 본방사수